

보도 일시	2023. 8. 23.(목)	배포 일시	2023. 8. 23.(목)
담당 부서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책임자	학예연구실장 김동우 (055-740-0661)
		담당자	학예연구사 최유미 (055-740-0663)

진주시 · 국립진주박물관 ‘한국 채색화의 흐름 II’ 특별전

- 국립진주박물관 ·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에서 8월 29일~11월 5일 무료입장 -
- 고려부터 근현대까지, 국립중앙박물관 · 현대미술관 등 대여전시 총 86점 -
-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컬렉션 꽃과 새 중심의 작품 선보여 -

진주시와 국립진주박물관이 공동주최하는 ‘한국 채색화 흐름 II’ 특별전이 오는 29일 개막한다.

8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과 국립진주박물관 두 곳에서 전시하는 ‘한국 채색화의 흐름 II’ 특별전은 작년 7만 1천여 명 관람객을 유치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 무료 전시로 ‘꽃과 새’를 주제로 한 한국 전통 채색화 86점이 전시된다.

또한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술강연회, 실감콘텐츠 체험, 주말 어린이 체험교육(미술관)을 진행하며 각 전시장에는 전시해설, 오디오가이드 및 온라인 전시(VR) 등 관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 채색화의 흐름을 조명하며, 진주 출신 홍순인, 이규옥, 박생광 작가와 서부 경남 출신 안상철, 허민 작가의 작품이 출품된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1·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낙이망우樂以忘憂 꽃향기, 새소리’를 주제로, 이도영과 김은호가 그린 꽃과 새 그림과 그의 제자 김기창의 ‘모란’, 정

진철의 ‘호접도’, 그의 아들 정은영의 ‘양귀비’와 ‘맨드라미’ 등이 출품되며, 허산옥, 정찬영, 김홍중, 유지원, 천경자, 오낭자, 이화자, 원문자, 이숙자, 황창배, 이경수, 이영수 등 총 24명의 작가 작품들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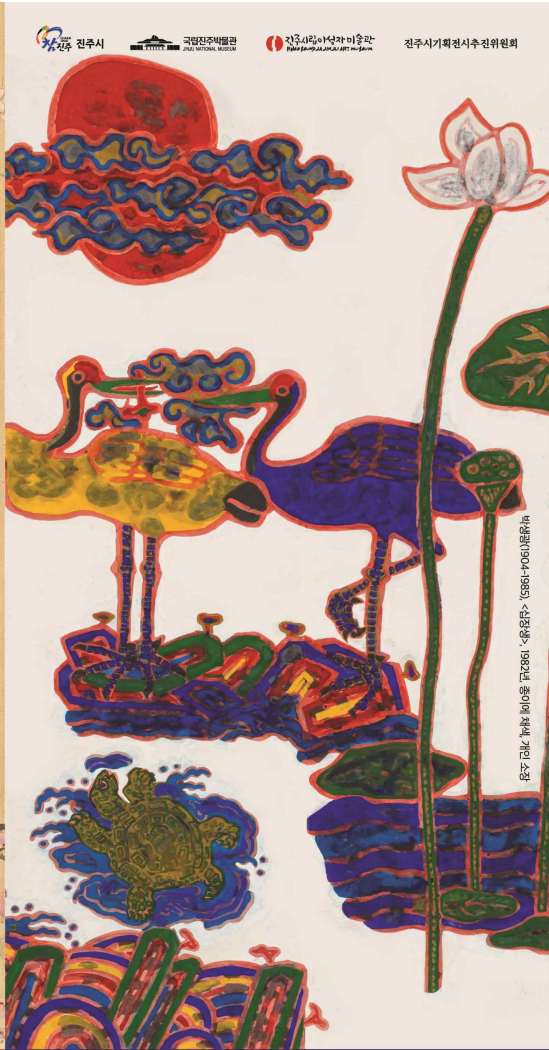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꽃과 새, 곁에 두고 즐기다’를 주제로 고려시대 임천의 ‘수덕사 벽화 모사도’를 비롯해 신잠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화조도’, 신운복의 ‘수탉’, 신명연의 ‘화조도’, 남계우의 ‘화접도’, 궁중장식화 ‘모란도’ 등 총 34점이 전시된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화조 무늬 도자기도 소개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서울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용인시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가나문화재단, 아라리오뮤지엄, 이영미술관, 안상철미술관, 미광화랑, 황창배미술관과 작가들 그리고 개인소장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진주시와 국립진주박물관은 ‘한국 채색화의 흐름Ⅱ’ 특별전을 통해 옛사람들의 염원과 소망을 함께 담아 그렸던 화조화가 근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가늠해보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경남의 거점도시로 ‘진주’가 앞장설 것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전시로나마 꽃향기와 새소리를 벗하며 일상의 여유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1부. 끝.



한국
채색화의
흐름 II

: 꽃과 새, 곁에 두고 즐긴다

The Flow of Korean Polychrome Paintings II

2023. 8. 29.TUE — 11. 5.SUN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 진주시립여성자미술관 1·2층 기획전시실

한국
채색화의
흐름 II

: 낙이망우 樂而忘憂
꽃향기, 새소리

The Flow of Korean Polychrome Paintings II

2023. 8. 29.TUE — 11. 5.SUN

진주시립여성자미술관 1·2층 기획전시실 |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꽃과 새花鳥圖, 신명연申命衍(1809~1886), 조선 19세기, 비단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십장생十長生, 박생광朴生光(1904~1985), 1982년, 종이에 채색, 개인 소장